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전문가 육성에 앞장

지난 9월 29일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신진규)는 경기남부지회(지회장 이재일)를 통해 한경대학교 토목안전환경공학과 재학생 10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장학증서는 신진규 회장을 대신해 경기남부지회 이재일 지회장이 전달했다. 이번 한경대뿐만 아니라 협회는 산학협력을 체결한 대학교의 안전공학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미래 우수 안전인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월 29일 교통대와 한경대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것을 시작으로 10월 1일에는 부경대 학생 5명, 10월 2일에는 충북대 학생 10명에게 장학증서를 각각 수여했다. 서울과학기술대 학생들에게도 조만간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포항지회, 안전질서 생활화로 무재해 산업현장 구현

지난 10월 2일 대한산업안전협회 포항지회(지회장 성기철)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김사익)과 함께 형산강 로타리 일원에서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사익 포항고용노동지청장과 김진원 산재예방지도과장, 성기철 협회 포항지회장을 비롯해 (주)포스코, 포스코패밀리사안전관리인협회의, 경북동부안전관리인협회의 등 포항지역 안전보건 관계자 80여 명이 참여했다.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질서 지키기'는 △보호구 착용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작업절차 준수 등이다.



해외 우수안전관리시스템 벤치마킹 기회 제공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신진규)가 해외 주요 기업의 선진안전관리 시스템을 둘러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회원들에게 제공했다. 산재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자랑스러운 안전인'으로 선정된 18명의 협회회원들은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의 주요기업을 방문해 선진안전관리시스템을 살펴봤다. 이번 행사는 해외 유명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과 안전활동 내용, 안전교육 절차 등을 접해보고, 국내 안전관리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요비용은 전액 협회에서 지원했다. 시찰단은 첫날 오사카 아베노 방재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칸자키 등지의 안전관리 우수 사업장을 방문해 선진안전관리시스템과 노하우 등을 집중 견학했다.



중대산업사고 예방 위한 정보교류 활성화

전북지역 내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정보교류를 강화하는 등 협력키로 했다. 지난 9월 25일 대한산업안전협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재현), 전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센터장 오학수), 전북화학공장협의회(회장 김동경) 등 유관기관들은 지역 내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데 합심하기로 했다. 또 사업장의 안전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관 역할을 결집하기로 했다. 김재현 협회 광주지역본부장은 “관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서부지회, 재해 다발 사업장 집중관리로 안전사회 구현

지난 9월 25일 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서부지회(지회장 지영근)는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지사장 박대식) 등 안전보건유관기관과 함께 대구염색산업단지공단에서 위험성평가 활성화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염색공단에서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진행됐다. 협회 대구서부지회는 캠페인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한 30여 개사를 직접 방문,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 잠재 유해·위험요인을 사업주에게 알려 개선조치토록 하는 등 재해예방 활동도 실시했다.



안산·시흥지역 안전인들, 산재예방 위해 합심

안산·시흥지역 재해예방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덕희)과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산지회(지회장 김석진),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지사장 이규남) 등은 ‘산업현장 4대 필수안전수칙 지키기’ 캠페인을 지난 9월 23일 안산역 광장 앞에서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안산·시흥지역 재해예방 유관기관 관계자 40여 명은 출근길 근로자 1000여 명에게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4대 필수안전수칙이 적힌 리플릿 등을 나눠주면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북부지역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경기북부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유관기관이 합심해 캠페인을 펼쳤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북부지회(지회장 장동주)는 경기도 양주 검준산업단지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지난 9월 26일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화목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을 비롯해 장동주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북부지회장, 김동섭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장동주 지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관내 제조업 밀집지역에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사업장 구현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수원지회, 사망재해 예방 안전수칙 지키기 운동 전개

대한산업안전협회 수원지회(지회장 오세동)는 지난 10월 16일 오전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수원 병무청 사거리에서 관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망재해 10대 다발작업 안전수칙 지키기 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수원지회 임직원과 관내 안전관계자 30여 명은 출근길 근로자들에게 '사망재해 10대 다발작업'에 대해 알리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적극 전파했다. 또한 산재예방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안전문화의 확산 및 정착에도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진단·기술본부, 직무능력 향상 교육 실시

대한산업안전협회 건설진단·기술본부(본부장 양향열)는 지난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협회 산업안전연수원에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양향열 건설진단·기술본부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건설진단·기술본부 직원이 참석했다. 교육을 통해 직원들은 변화된 건설안전 관련 법·제도를 숙지하고, 최신 기술 및 정보를 공유했다. 또 건설안전분야의 중장기 전망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